장 터 에서

At the Market



부보상의 주 활동무대인 오일장은 대개 한 달에 여섯 번 개장된다. 모든 지역이 같은 날에 개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오일장들이 하루씩 날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부보상들은 매일 다른 지역의 오일장으로 이동하며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오일장은 교역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축제이기도 했다. 장이 서면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구경하고 흥정도 한다. 그간 궁금했던 이웃 마을의 소식을 접하거나 혹 오랜만에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피어난다. 여기에 더하여 난장이라도 벌어지면 풍장패와 남사당패 등 볼거리도 넘쳐나니 축제임이 분명하다.

● 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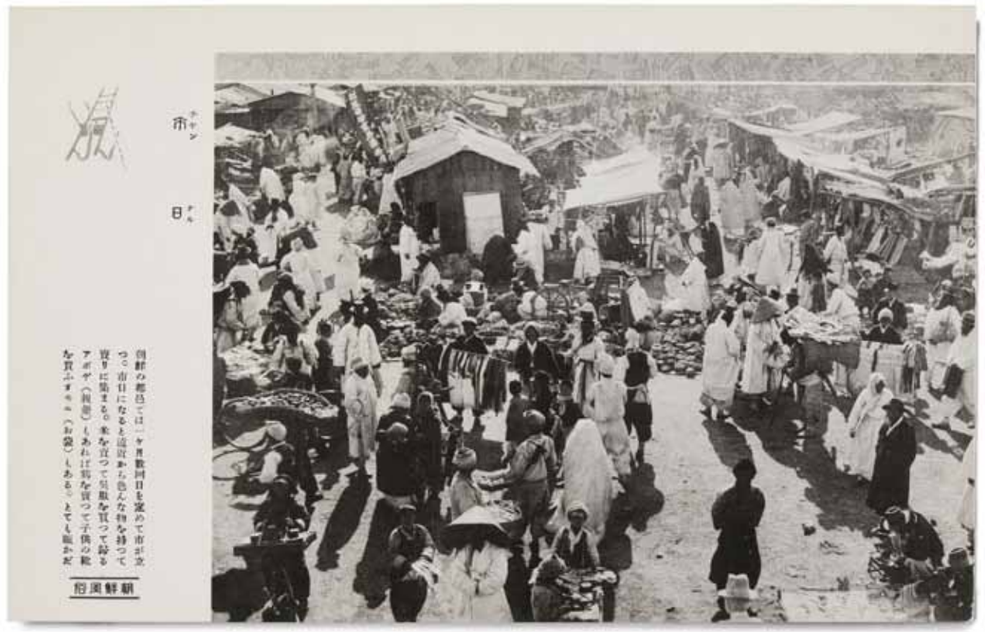
이형록 (李亨祿, 1808~?)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풍속도(風俗圖) 중의 한 장면이다.
눈 쌓인 겨울 어느 날 행상단이 물건을 팔기
위해 시장으로 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다.



129
설중향시 雪中向市 Painting, *Bubosang* is on the road
가로388 세로282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30
엽서(강경) Postcard(*Ganggyeong*)
가로142 세로91 1900년대



131
엽서(장날) Postcard(Market day)
가로138 세로88 1910~1945년



132
엽서(시장)
Postcard(Market)
가로141 세로90 1920년 이후



133
엽서(잡화점)
Postcard(Miscellaneous goods shop)
가로140 세로91 1910~1920년대



134
엽서(금속품 가게)
Postcard(Metalware shop)
가로141 세로91 1910~1945년

135
사기그릇 Porcelain Bowls
20세기 연기향토사료관 소장



시장(市場)의 약방(藥房)

난전(亂廛)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장터에는 갖가지 물건들이 등장하고 팔려 나간다. 북적대는 사람들 한 켠에서 약을 지어 파는 이도 있다.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약재의 이름이 적힌 종이봉투들이 가득 들어있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즉석에서 조제도 가능하다.



136
약작두 藥斫 Medicine Chopper
길이570 너비115 높이115 20세기 연기향토사료관 소장





137
약 담긴 바구니 Medicine Basket
가로570 세로405 높이350 20세기 연기향토사료관 소장



138
약저울 Medicine Scale
길이295 너비107 두께27 1920년대

목판 위에 엿을 올려놓고 가위로 잘라서 팔았다.



139
엿가위 糖剪刀 Taffy Scissors
길이283 너비130 1950~1960년대

140
엿목판 糖木板 Wooden Case for Taffy
가로900 세로300 높이80 20세기

호도엿 사려! 호도엿 사려맨
제피 건강에 흑도엿 사려!
가락 굵고 유하고 쫄깃 쫄깃 혀에 녹는 호도엿 사려!
양념맛으로 닷푼어치 콩엿 사려!
깨엿사려! 늙은이 해소에 허기끈는 콩엿사려!
쏜 화살을 불을 게소, 엎어진 물을 거두겠소.
이제 못사면 후회하는 호도엿이요. 수수엿이요.



141
엿장수 糖販 Korean Taffy Dealer
가로142 세로97 1906~1907년



142
엽서(짚신장수) Postcard (Straw shoes dealer)
가로90 세로140 1920년대

미투리 10켤레를 묶어 놓은 것이다.



143
미투리 Hemp Shoes
지름550 20세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도량형

도량형은 물건을 계량 · 계측하는 도구로 물건의 양 · 무게 · 길이 따위의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와 교환 등의 상거래 활동에 꼭 필요한 기준점이다.

도량형은 무엇보다도 장시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물건과 물건 간의 교환조건을 위한 등가기준(等價基準)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도량형을 통일시키는 것도 중요해 그 표준안을 명문화하고 도량형기를 매년 점검하는 등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행하여 졌다.



도량형은 부피를 재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그 양에 따라 섬[石], 말[斗], 되[升], 홉[合] 등이 있고 시대에 따라 그 용적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들은 조세나 거래 등 사회경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대마다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률 제 1호로 도량형법(度量衡法)을 정하고 도량형기 판매규칙을 정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었던 광무 9년(1905)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섬은 10말의 양으로, 약 180ℓ에 해당한다. 말은 10되의 양이며, 약 18ℓ 에 해당한다. 되는 두손으로 움켜잡은 양으로 약 1.8ℓ에 해당한다. 홉은 한줌의 양으로 되의 10분의 1, 약 180㎖에 해당한다.
섬 石=10말 말 斗=10되 되 升=10홉 홉 合=되의 1/10



144
되 升 *Doe*, Measure
지름140 높이90
19세기 말



145
되 升 *Doe*, Measure
가로205 세로70 높이68
조선



146
되 升 *Doe*, Measure
지름165 높이82
조선



147
반홉 쑤솜 *Banhop*, Square *Hop* Measure
가로68 세로68 높이49
20세기 말



148
자루바가지 Gourd Measure
길이289 너비100 높이45
20세기 말

한쪽 면에 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말로, 다른 세 개의 면에는 '甲戌正月日', '新造', '賭斗'와 수결이 새겨져 있다. 되와 말은 공조(工曹)에서 제정하여 제조하는데 되, 말의 문란함을 막기 위해 공조에서 제조한 것은 그 연월과 관사(官司)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였다. 이음새 부분은 금속장식으로 보강하였으며, 용적은 9.1ℓ이다.

밑바닥이 넓고 위가 좁은 사다리꼴 말이다. 숙종 41년 고봉(高捧: 되질이나 말질할 때 전 위로 수북하게 쌓음)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다리꼴의 말과 섬을 구리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149
말 斗 *Mal*, Measure
가로280 세로280 높이140
1950~1970년대



150
말 斗 *Mal*, Measure
가로285 세로285 높이160
조선



151
말 斗 *Mal*, Measure
가로300 세로300 높이145
조선



152
말 斗 *Mal*, Measure
지름250 높이220
1970년대



153
말 斗 *Mal*, Measure
지름270 높이232
20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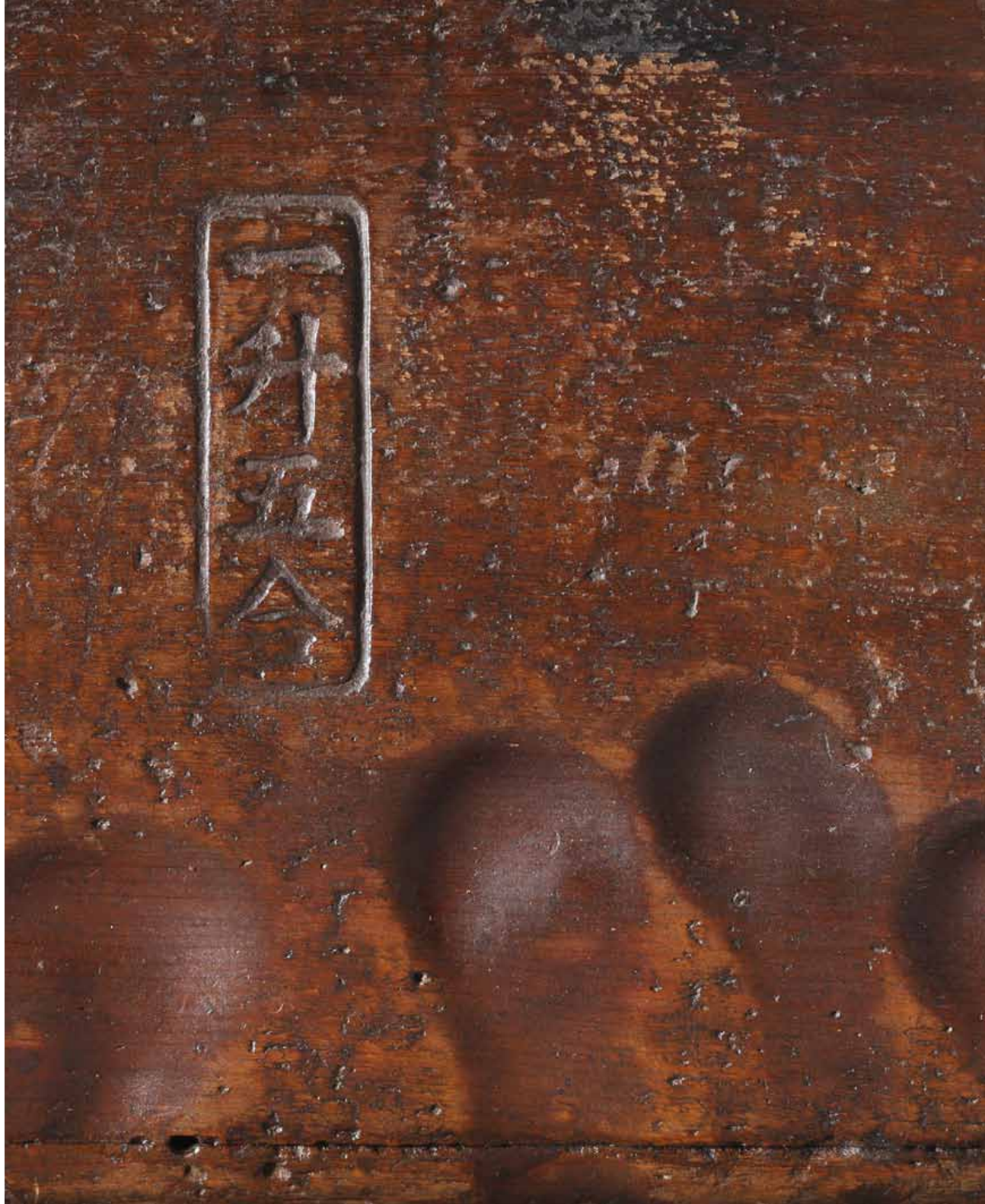
'穀用一升' 과 '官' 자 화인(火印)이 있는 되로
윗면과 옆면에 철 테두리를 둘렀다.
용적은 약 1.81ℓ에 해당된다.

'一升五合' 과 '平' 자 화인(火印)이 있는 되로, 용적은 약 2.67ℓ이다.
옆면과 아랫면에 손자국이 있는 점이 흥미롭다.



154
되 升 *Doe*, Measure
가로227 세로105 높이115 광무 9년(1905)

155
되 升 *Doe*, Measure
가로250 세로103 높이137 광무 9년(1905)





156
모말 斗 *Momal*, Square *Mal* Measure
가로280 세로285 높이152 19세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곡물을 계량하는 정방형의 말이다. 판의 이음새
부분을 무쇠장석으로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157
원통형 말 斗 *Mal*, Round *Mal* Measure
지름305 높이250 19세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통나무 속을 파내고 손잡이를 깎아 만든 것으로,
용적은 약 9ℓ에 해당한다.

곡식 등을 담기 위해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이다.



158
섬 石 *Seom*, Measure
길이800 너비200 높이480 20세기

되나 말질을 할 때 안에 담은 내용물의 양이
일정해지도록 평평하게 미는 도구이다.
고려시대 명종 3년에는 평두량도감(平斗量都監)을
설치하여 말, 되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밀대를
쓰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귀양을
보내기도 하였다.



159
밀대 概木 Measuring Pins
길이365 지름25 / 길이367 지름57 19~20세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로,
저울대와 추로 구성된다.



162
대저울 Steelyard
길이1500, 추 지름96 높이132 20세기

90斤(kg), 150斤용 대저울이다.
저울대에 은입사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160
60, 200근용 대저울 추 Weight
지름100 높이145 20세기



161
250근용 대저울 추 Weight
지름106 높이150 20세기

163
저울 Scales
길이570 / 길이410 1950년대



164
저울 Scale
길이515 조선



165
저울 Scale
길이415 조선



166
저울 Scale
길이320 조선

통대나무를 깎아 다듬은 저울로 한쪽 끝에는
세 개의 구멍을 내어 철제 갈고리와 저울의
중심을 잡는 짧은 끈을 달았다.





167
지승 추 Weight
지름50 높이70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68
지승 추 Weight
가로90 세로50 높이120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저울대에 걸어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둥글고 모가 난 돌에 지승으로
엮은 망이 씌워진 형태를 띄고 있다.



169
지승 추 Weight
지름40 높이85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70
지승 추 Weight
지름35 20세기 초

길이를 재는 도구로,
『주례(周禮)』에 규정된 자이다. 뒷면에는
'주척준황종척장육촌육리(周尺准黃鍾尺長六寸六里)'
즉 주척을 황종척으로 재어보면 6촌 6리에 해당한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171
유척 鍮尺 Rulers
길이206 너비11 / 길이307 너비13 조선





● 거래문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표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지급을 약속한
표시를 가운데에 적고, 한 옆에 날짜와
채무자의 이름을 적어 수결이나 도장을
찍은 후 한 쪽씩 나누어 가졌다.



172
어음 矩券 Bill
가로35 세로140 조선후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73
부보상 장부 負褓商帳簿 *Bubosang* Account Book
가로239 세로234 대한제국 신세계 한국금융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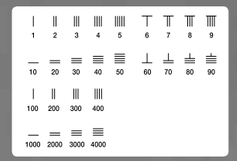
174
엽전과 엽전함 Korean Brass Coin and Brass Coin Box
가로292 세로205 높이225 조선

셈기구

흰 뼈로 된 패를 이용하여 곱셈을
할 수 있는 셈기구이다.



175
계산패 計算牌 Counting Materials
길이111 너비16, 상자 가로60 세로135 높이50 18~19세기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 만든
막대로 일정한 방법으로
늘어놓아 숫자를 표시하거나
계산한다.

176
산가지 算木 Wooden Counting Sticks
길이100, 상자 가로137 세로86 높이85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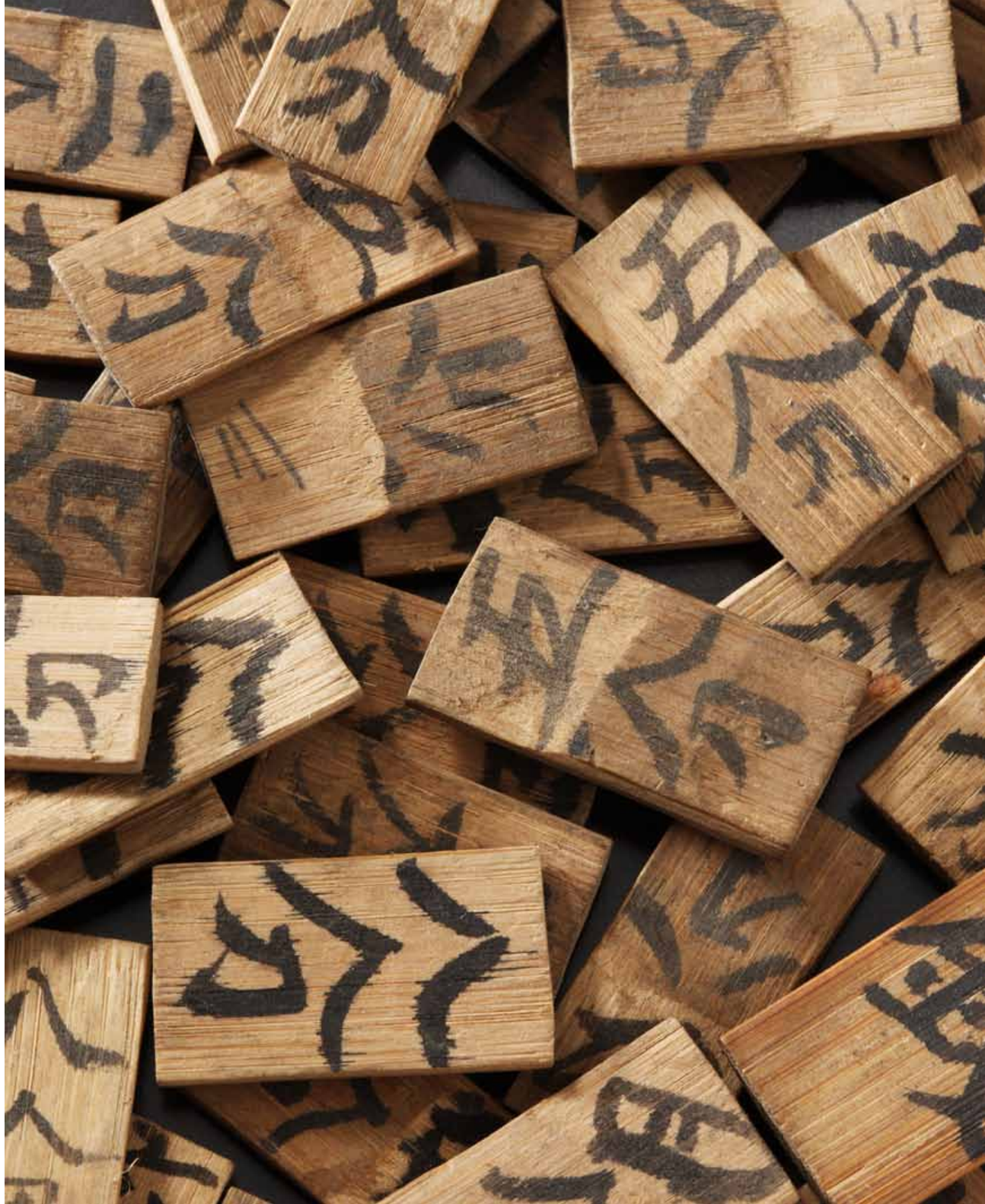
177
산가지 算木 Wooden Counting Sticks
길이110, 주머니 너비130 길이110 20세기 초

178
산통 算筒 Counting Sticks Case
지름52 길이115 19~20세기

지게의 짐 등을 셀 때 사용하는 셈기구로
분(分)과 전(錢) 단위가 각각 적혀 있다.



179
산목 算木 Bamboo Counting Sticks
가로10 세로54 20세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할 수 있는 셈기구로,
주판알의 위치를 이동시켜 수를 표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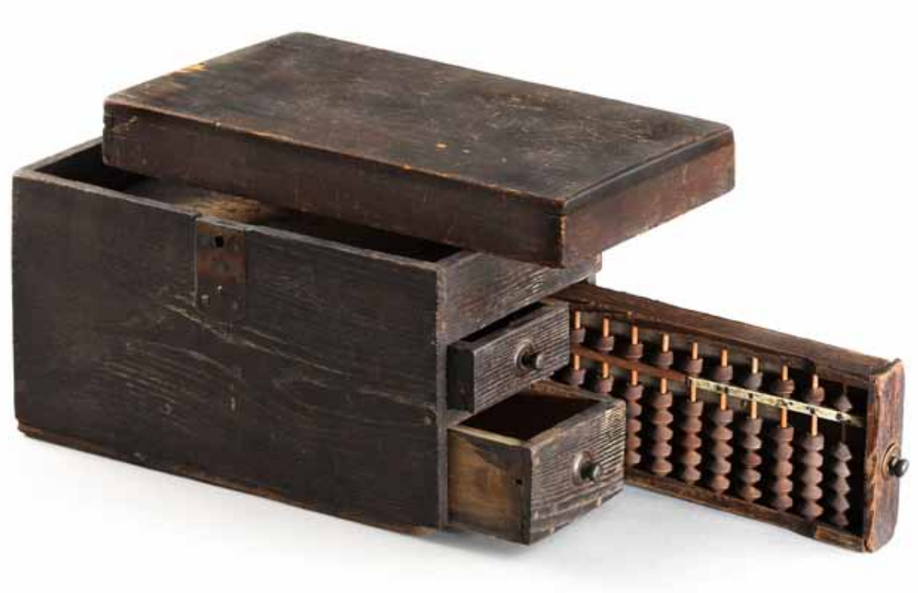
철제 상자 안에 들어있는 주판으로
휴대가 간편하도록, 주판 아래에는
도장을 담을 수 있는 통과 인주를 담는
통이 있다. 주판 윗면에는 도량형
환산표가 달려 있어 휴대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80
주판 珠板 Counting Board
가로240 세로165 조선후기

181
주판 珠板 Counting Board
가로420 세로180 1920년대

182
주판 珠板 Counting Board
가로168 세로101 20세기

주판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보관함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183
주판함 珠板函 Counting Board Case
가로265 세로140 높이137 19세기

난장

사당놀이의 무동 장면으로 무동을
태우고 일렬로 늘어선 사당패 일행과
악사, 구경꾼들의 모습이 보인다.



184
남사당놀이 *Namsadang*, Strolling Players
가로112 세로75 1935년



185
사당패 寺黨牌 Picture of Music Troupe Holding Instruments
가로143 세로95 1907~1908년



남사당의 탈놀음(假面劇)은 덧뵈기라고 하는데, 덧뵈기는 각 지역에 분포, 전승되어오는 탈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등장인물도 적고 내용도 네 장면으로 간소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탈춤에 비해서 춤사위가 적고 대신에 연기와 재담이 더 풍부하며 사회 풍자가 짙은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남사당가면 男寺堂假面 Strolling Players' masks
1960년대



186
노친네탈
길이240 너비210



187
말뚝이탈
길이290 너비270

188
먹중탈
길이320 너비310

189
샌님탈
길이260 너비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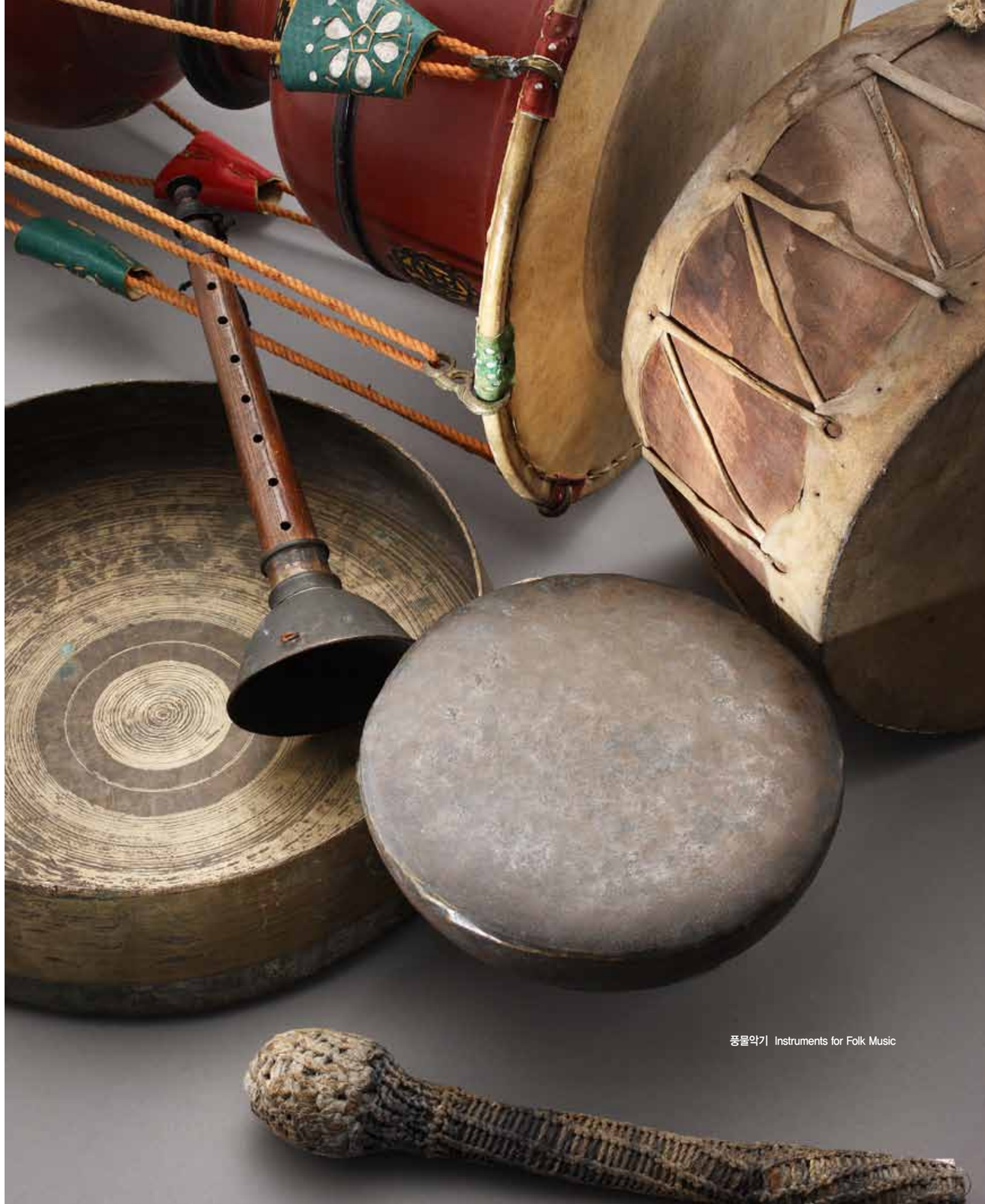


190
여인피조리
길이250 너비250

191
옴탈
길이310 너비300

192
잡탈
길이260 너비225

193
취발이탈
길이270 너비270



풍물악기 Instruments for Folk Music



풍물놀이를 할 때 쓰는 모자로 꼭지에 새털이나
끈 등을 달아 돌리면서 놀음을 한다.

194
상모 象毛 Percussion Players' Hats
지름305 높이150 20세기

모래시계 모양의 몸통 양면에 가죽을 대서 만든 타악기로,
거의 모든 전통음악에 빠지지 않고 사용된다.



195
장구 長鼓 Double-headed Drum
길이580 지름450 조선

풍물, 무속음악 등에 쓰이는
금속 타악기로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낸다.



196
꽹과리 小鑼 Small Gong
지름225 두께45 20세기 초

풍물, 대취타 등에 쓰이는 금속
타악기로 낮고 웅장한 소리를 낸다.



197
징 銅鑼 Gong
지름380 두께85, 채 길이330 20세기 초

풍물에 쓰이는 악기 중의 하나로,
손이나 채로 두드려 소리를 낸다.



198
북 鼓 Drum
지름340 너비200 조선

풍물 등에 사용하는 관악기로 풍물악기 중
유일한 선율악기이다.



199
태평소 太平簫 Wooden Body Trumpet
길이342 지름107 20세기 초



200
시름ᄒᆞ는모양 Painting of Korean wrestling *Ssireum* (Replica)
가로130 세로170 2002년 모사도

즉방울이요. 즉방울 자! 하늘에 솟으면 즉방울이요!
즉방울을 보시오. 하늘에 솟으면 즉방울이요.
땅에 떨어지면 땅방울이다.
네놈의 팔자가 즉방울이라 땅에 떨어져서는 못사느니라
즉방울이요 즉방울. 즉방울이요 즉방울.
자 즉방울이요!



202
죽방울 弄珠 *Juckbangul*, Korean Folk Game with Wooden Plaything
길이570 20세기 예덕상무사 소장



201
즉방울밧는모양 Painting of *Juckbangul* Game (Replica)
가로130 세로170 2002년 모사도

약장사들이 장시에서 호객하기 위하여
사용한 놀이기구로 장구모양의 나무토막을
줄을 걸어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며 논다.
1900년대 예산 맹재명의 죽방울을
예덕상무사가 재현한 것이다.



앞면에 다이얼 잠금장치가 부착된 함으로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한다. 이동이 편리하여 규모가 작은 상점, 트럭행상 등에서는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3
금고 金庫 Safe
가로365 세로250 높이150 1940년대

상품 판매시 입 · 출금을 계산, 기록하고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계이다. 오늘날에는 자판을 누르는 대신 바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계산한다.



204
금전등록기 金錢登錄器 Paying Machine
가로490 세로400 높이480 1960년대

주로 식료품의 무게를 재는데 쓰이는
저울이다.



205
저울 Scale
가로250 세로250 높이320 20세기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용수철의 특성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한다.

206
용수철저울 Spring Scale
길이340 1960년대

거북저울이라고도 하며 무게가 다른 여러 개의 추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한다. 주로 손에 들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을 재는데
사용한다.



207
저울 Scale
가로530 세로250 높이300 1960년대